

## 최진영's China/Commodity Trends

# 중국의 외교적 수사 통해 살펴본 美中갈등 재개 가능성



China / Commodity  
**최진영**  
02 3779 8689  
jychoi@ebestsec.co.kr

지난 9월 10일, 美中 정상은 7개월 만에 전화통화. 바이든 美 대통령은 양국간 경쟁이 충돌로 확산되지 않길 바란다 언급. 중국 외교부는 '진솔'하고 '심도'있으며 '광범위'한 전략적 대화들이 있었다 평가.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美中갈등의 완화 가능성으로 접근

그러나 美中 정상간 전화통화 내용은 중국의 외교적 수사 + 과거 사례들을 참고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움. 인민일보는 외교에 있어 '진솔(坦誠)'의 의미를 솔직하고 성실한 대화가 아닌, 상호간 이견 또는 불가능한 소통이라 설명. 2018년 3월 2일,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류허 부총리의 방미와 관련하여 철강/알루미늄 관세 문제에 관해 '진솔'한 교류가 있었다고 평가. 그러나 8일 트럼프 美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관한 행정명령 서명, 23일 중국 상무부 역시 보복관세 부과

이미 과거와 같은 유사점을 확인되기 시작. WSJ는 바이든 美 행정부가 중국의 산업보조금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 제재 검토 중이며, FT는 행정부가 '타이페이 대표처'를 '타이완 대표처'로 명칭 변경 검토 중이라 보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베트남 방문 중 '역외 세력'이 ASEAN의 지위를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문제 거론하는 미국을 우회적 비판

9월 14일, 왕이 외교부장 방한 예정,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다시 커질 수 있음. 다만, 베트남에서의 왕이 외교부장 발언, 美中 정상 전화통화에서 거론된 중국의 '핵심이익(국가안보 등 합의 불가한 중국정부의 최고 가치)', 중국의 외교적 수사 등 고려하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 지금은 기대보다는 美中갈등의 재개 가능성 경계 필요

## 중국의 외교적 수사를 의심하자

시기	주요 내용
'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 협상	- 2018년 3월 2일,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 전날 류허 부총리-미국간 철강/알루미늄 관세 문제 관련 ' <u>진솔한 교류</u> ' 진행되었다 답변. - 3월 8일 트럼프 美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 23일 중국 상무부는 3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부과 예고
'18년 美中 포괄적 경제대화	- 2018년 5월 4일, 美中 포괄적 경제대화(CED) 종료. 류허 부총리는 ' <u>진솔'하고 '효율'적이면서도 '폭넓은' 대화</u> '를 했다고 평가. - 당일 美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방문한 Financial Team은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면담 실패. 5월 5일, 트럼프 美 대통령은 중국 측이 무역협상에서 이기기 위해 매우 나쁜 버릇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언급
'19년 美中 고위급 무역협상	- 2019년 5월 9일, 중국 상무부는 美中 고위급 무역협상 관련하여 ' <u>진솔'하고 '심도'있는 교류</u> '가 있었다 언급. - 2019년 5월 10일, 미국은 2천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10% → 25%) 부과.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등 계열사 70곳을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 등록
'21년 알래스카 앵커리지 고위급 회담	- 2021년 3월 18일, 왕이 외교부장 방미. 국제/역내문제 관련 ' <u>진솔'하고 '심도'있는 내용으로 장시간 '건설적' 대화</u> ' 있었다 평가. - 4월 15일, 美 대통령 특사단 대만방문, 차이잉원 대만총통 접견. 4월 16일, 美日 정상회담과 5월 21일 韩美 정상회담 공동성명문 상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 강조.
'21년 美中정상 전화통화	- 2021년 9월 10일, 美中정상 전화통화. 中외교부는 양국간 문제 관련 ' <u>진솔'하며 '심도'있고 '광범위'한 전략적 대화</u> ' 오갔다 평가. - 9월 11일, WSJ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산업보조금 문제관련 추가 제재 검토 중이라 보도. FT는 행정부가 '타이페이 대표처'를 '타이완 대표처'로 명칭 변경 검토 중이라 보도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최진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기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등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등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등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등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